

死에 對한 研究(五)

韓稚振

三. 毒殺. 毒藥으로써 死함을 이룬 것이니 死케하는 毒藥은 大概 亞□酸, 砒酸, □酒石, 鑛酸, 알칼린, 石□酸, 火酒他 等일 것이다.

四. 凍死. 어려서 죽는 것이니 局部들이 白色이 되고 無感覺된다. 윈 처음에는 大端히 痛感을 늦길 것이다. 그러나 그 痛感이 減退되자 無感覺이 되며 깊은 잠을 자게 된다. 이에 다시 니러나지 못하고 永眠이 된다. 이 凍死는 □終에 잇서 가장 平安이 죽는 것이라 한다.

五. 餓死. 飮食 먹지안코 □□하는 그 □□은 □□溫血物에 □하야 □異하다. □血□□에 잇서 그 平□軍 量에 百分之四十 量을 □□케 되면 六□死한다고 한다. 첫째는 □□한 態度를 보이다가 □次溫□가 高度해지며 不安□動狀態에 至한다. 그러다가 無感覺하야 □□되고 만다. 이 餓死는 □食과는 天□의 差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. □食은 혼이 病□를 □□하려고 □行하는 것이나 □□는 普通死를 가져온다. 餓死는 心理的 □□에 依하야 其 □間에 □□을 決定할 수 있다. 억지로 餓死하는 것 가튼 것은 其 □間이 不過 數日 內로 決定되는 것이다. 이것은 意志의 튼튼한 □作이 아니면 不能하다.

六. 氣絶과 □死. 氣絶은 갑자기 呼吸에 制止로 되는 것이어니 □□가튼 것을 하야 □頭를 누르든지 할 때에 □치 못할 現狀이다. 이 □頭的 □到는 二十 分으로 三十 分 內外이면 絶命을 한다고 한다. 臨終 時하야 呼吸이 □□하고 오줌똥을 싣다. 이리하야 氣絶은 血□의 內에 酸素의 □□과 炭素의 增加로 된다.

七. 感激死. 갑자기 무슨 □□으로서 呼吸循環을 □止할 때에 生起는 死이다. 手術의 激動이라든지 分外的 □□事를 當面할 때에 呼吸은 停止된다. 이것은 勿論 各個人의 性質에 依하야 感激에 程度가 다. 를 것이다. 過激한 感動으로 □□에 至한 것은 酸素의 注入과 冷水의 使用으로써 回復케 할 수 잇스나 그것도 너무 지체해서는 안된다.

八. 電死. 이 電死에는 意識이 單番에 업서지고 만다. 그러나 肉體의 □□細胞들은 얼마동안 生存하여 잇슬 것이다. 죽기까지는 個人의 體質에 依하여 其 電量이 □異할 것이다. 電氣의 激動이 너무 急速함으로 血의 □結이 平常으로 되지 못한다.

九. 自殺. 이것은 空然 偶然死와 달나 自己의 命을 □絶하는 것이니 其 原因으로는 大概 生活難과 失戀일 것이다. 自殺의 形式으로는 絞首, 餓死, □死, 飲毒, 隱下□□이 普遍일 것이다. 이것은 意志의 薄弱者 또는 □見者에게서 흔히 보는 現像이다.

五. 死의 表示.

죽는 表示는 무엇일가? 大體로 論하면 理性의 □□과 無感覺이 나타나고 結□이 □色이 되어 □色 點이 身上에 나타난다. 身 溫氣는 쪼러져서 外界의 溫氣와 一致한다. 皮□는 羊皮□의 色을 티운다.

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三, 四, 五時 間□로 □體는 強□強直해진다. 이 □□은 一時 間으로 一□ 間 동안을 머물러 있다. 그러면 왜 □□는 □□해지는가? 身體 內에잇는 極□한 有□體들의 動作으로 된다. □는 것이니 □□은 □□의 □-□□이라 한다.